

제13과 믿음의 동역자들

골로새서 말씀 묵상 마지막 시간,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명을 이루는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독불장군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1. 바울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 된 사람들입니다.

1) ()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그는 아시아 지방 태생(행 20:4)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에 헬라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드로아까지의 육로여행에 바울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 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행전 20:1-5)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육성으로 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4:7-8)

① ()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소개는 ‘()’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의 지체들을 향해 기꺼이 ‘형제’로 불렸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5:1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8)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1)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 형제와 자매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50)

이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애뜻한 존재였기에,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② ()

사명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꾼에게 ‘신실함’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은 자들이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당신의 일을 맡은 자들의 ‘충성됨’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21)

바울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즉 바울도 충성된 일꾼이었고, 그와 함께 한 두기고도 역시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1-2)

③ 주 안에서 (_____)

두기고에 대한 세 번째 소개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꺼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1)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과 같이 두기고가 ‘주 안에서 함께 종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영적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임하는 두기고를 보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4:7-8)

2) (_____)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교회의 유력한 신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와 방황하다가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간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간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서 1:10-18)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골로새서 4:9)

→ 바울의 서신과 소식을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중책을 오네시모가 맡은 것입니다. 한 때 도망자였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임을 얻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3) ()

세 번째로 소개되는 바울의 사람은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은 그를 ‘함께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10)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투옥된 바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행전 19:29)

그는 얼마 후에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으며,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바울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사도행전 27:1-2)

이와 같이 바울과 동고동락한 그를 가리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와 유스도와 함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4:11)

4) ()

다음으로 소개된 사람이 ‘마가’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 소개됩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마가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서 요한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12)

그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 13:13)

이 일로 인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갈 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 그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마가는 처음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 철저히 헌신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삼촌 바나바의 권위와 지도에 의해 차츰 훌륭한 일꾼으로 변모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는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사역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
니라”**

(디모데후서 4:11)

마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때 실패한 사역자일지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
꾼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 ()

골로새서 1장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교회를 개척한 사역자
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 골로새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한 훌륭
한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라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
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서 4:12)

→ 우리는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영적 권면 첫 번째가 기도였음을 확인했습니
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기도의 사람이
였기에 골로새교회가 바울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
니다.

두 번째, ()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
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서 4:13)

→ 바울은 에바브라의 수고에 대해 스스로 증인으로 자처합니다. 그만큼 에바브라는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의사 누가와 데마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살았고, 복음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